

## HEADLINE NEWS

### 도심의 24시간 활력 재생을 위한 조례 시행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는 최근 새롭게 전개되는 건축물 용도 전환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지역의 부동산 개발활동 장려 및 촉진의 일환으로 '주거 및 업무지원팀(Housing and Business Team)'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민간부문과 상호 협력하여 진행되는 도심활력 재생사업은 시민들이 24시간 도심에서 직주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는 '적응형 도시 건축물 재이용 조례(Adaptive Reuse Ordinance)' 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 건축물 재이용 사업의 추진은 도심의 공실 점유비율을 낮추고, 도심의 지역 사회를 형성하여 직주 균형을 이루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조례 시행에 힘입어 도심에서는 약 3,000개의 건물이 개발중이며, 이 가운데 10% 정도는 주거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시와 시의회는 차이나타운, 할리우드, 한인타운 등과 같은 지역사회에도 '적응형 도시 건축물 재이용' 조례를 확대 시행하여, 도시의 활력을 더욱 증진시킬 예정이다.

(www.lacity.org/mayor/oldpress)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 강화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추진 (샌타모니카)
- ② 침체된 도시구역 재건을 위한 재개발 프로그램 시행 (베를린)

### 도시환경

- ③ 건물 옥상녹화의 열섬현상 완화효과 측정 (동경)
- ④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 추진으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샌프란시스코)
- ⑤ '낙서와의 전쟁' 추진 (볼티모어)

### 도시교통

- ⑥ 카풀을 이용하는 교외통근자에게 주유카드 발급 (애틀랜타)
- ⑦ 도심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동경)
- ⑧ 새로운 지능형 횡단보도 설치 (영국: 셰필드)
- ⑨ 휴대하기 간편한 고속버스 노선도 발간 (런던)

### 사회복지

- ⑩ 무료 예방접종 및 수은체온계 교환행사 개최 (디트로이트)
- ⑪ 문맹 퇴치 위해 평생교육교사 채용 (워싱턴 D.C)

### 행.재정

- ⑫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동경)
- ⑬ 시의회 회의를 지역 케이블TV로 생중계 (댈러스)

### ①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 강화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 (샌타모니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Santa Monica)시는 최근 기존의 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계획(Sustainable City Plan)」을 수립, 지속가능성을 강화했다. 이 계획은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지역사업체,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기능의 분담과 장기정책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환경 부담은 줄이고 市 재정 절감 및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정·보완된 계획에서 향후 10년간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자원 관리, 환경과 공중보건, 교통, 경제 성장과 발전, 오픈 스페이스와 토지 이용, 주택, 지역사회 교육 및 주민 참여, 인간의 존엄 등이다.

이 계획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도시 중 최초로 재생전기를 이용해 모든 시립시설의 동력을 제공했으며, 세계 최초로 환경구매(environmental purchasing)와 유독성 물질 감소정책을 실시해 미국과 유럽, 일본, 필리핀에서까지 이를 벤치마킹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샌타모니카 도시 빗물 재활용시설’을 완공하여 물을 절약하고 市의 만(灣)을 보전했다.

([santa-monica.org/cm/news/releases/archive/2003/epwm20030214.htm](http://santa-monica.org/cm/news/releases/archive/2003/epwm20030214.htm))

### ② 침체된 도시구역 재건을 위한 재개발 프로그램 시행 (베를린)

독일 베를린의 도시관리 프로그램 「URBAN II」는 유럽연합과 함께 실시중인 70개 유럽도시의 침체된 구역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숫자 “II”는 프로그램의 2번째 주기인 2000~2006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해당지역을 사회 경제적으로 활기차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市 철도관련 대중교통의 중심지인 오스트크로이츠역(S-Bahnhof Ostkreuz) 일대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시장 및 경제적 장벽, 도시공간 및 생태적 장벽, 사회적, 윤리적,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urban](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urban))

### ③ 건물 옥상녹화의 열섬현상 완화효과 측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가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실험은 경량 이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옥상녹화 기술을 개발하여 확대·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都 환경국 환경과학연구소, 산업노동국 시험장, 건설국 토목기술연구소 등 3개 부서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 실험은 먼저 다양한 옥상녹화시설을 시공하여 설치한 후, 약 2개월간 옥상 녹화에 따른 건축물의 열수지(熱收支), 옥상녹화 식물의 생육 특성 등을 관측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옥상녹화에 따른 열섬현상의 완화 효과를 평가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옥상녹화 기술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08/20d8b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08/20d8b100.htm))

### ④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 추진으로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의회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市환경국 등과 연계된 16.3백만 달러의 「에너지 효율 시범계획(San Francisco Peak Energy Pilot Program)」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주거 및 업무용에서 나타나는 최고 임계치 에너지의 소비 수요를 줄여,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향상되도록 계획되었다. 이는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과 겨울철 난방 사용량이 최대일 때의 전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의 시행은 주거용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 및 환급, 에너지 이용체계의 진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등과 같은 9가지 유형의 세부 에너지 소비절약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2005년 1월까지 16메가와트 정도를 절약하는 것이 목표이다. ([www.sfgov.org/sfenvironments/articles\\_pr/2003/pr/072303.htm](http://www.sfgov.org/sfenvironments/articles_pr/2003/pr/072303.htm))

#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낙서와의 전쟁' 추진 (볼티모어)

미국 볼티모어시는 최근 시 전역에서 제거한 낙서가 지난 2년 사이에 4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년간 1,675,000평방피트가 넘는 낙서를 제거했는데, 이는 2001년에 374,747평방피트를 제거한 것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 토목과는 지난해 4월 낙서를 제거하기 위해 담당인력을 2명에서 6명으로 늘였다. 또한 시는 낙서로 인한 훼손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위반자는 구류, 벌금, 사회봉사명령 등에 처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낙서된 곳을 발견하면 민원전화서비스 '311'로 연락하고, 낙서훼손행위 현장을 목격하면 긴급전화 '911'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www.ci.baltimore.md.us/government/dpw/press/030716.html](http://www.ci.baltimore.md.us/government/dpw/press/030716.html))

### 6 카풀을 이용하는 교외통근자에게 주유카드 발급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시는 최근 교외통근자들의 카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카풀장려 프로그램 「Super\$ize Carpool Reward Program」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5~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재의 카풀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카풀 등록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교외통근자에게 동승자가 1명씩 추가될 때마다 25달러 주유카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카풀 인원이 2인이면 25달러 주유카드, 3인이면 50달러 주유카드를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유카드를 받기 위해 프로그램에 등록된 교외통근자는 매월 주당 3일 이상 카풀을 해야 하며, 작성한 카풀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주유카드는 카풀일지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카풀 동승자를 찾는 사람은 지역위원회에서 운영하는 'Commute Connections' ([www.commuteconnections.com](http://www.commuteconnections.com))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교외통근자 DB를 통해 적당한 동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신청은 이메일이나 무료전화 '1-87-RIDEFIND'로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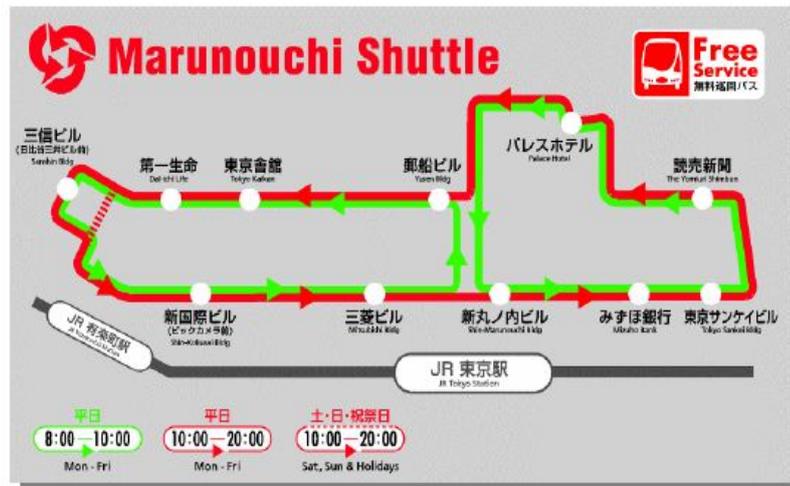
([www.ci.atlanta.ga.us/homepage/hottopics/carpooling081103.htm](http://www.ci.atlanta.ga.us/homepage/hottopics/carpooling081103.htm))

### 7 도심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동경)

일본 東京都의 도심지역을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된다. 이 지역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셔틀버스 운행위원회는 8월 말부터 東京역 일대 大手町・丸の内・有樂町 지역을 순회하는 환경형 전기버스인 ‘마루노우치 셔틀 (Marunouchi Shuttle)’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東京電力과 日の丸自動車興業이 교통분야의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개발해온 것으로, 저공해·저상(低床)·저소음을 실현한 일본 최초의 버스이다. 셔틀버스는 운행위원회가 日の丸自動車興業에 위탁하여 운행하는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大手町에서 丸の内, 有樂町, 日比谷지역을 2대의 버스가 순환하면서 운행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30분이며, 정류장은 총 11개소이다.

이 셔틀버스는 東京역 일대 업무빌딩간의 연결과 관광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이 지역은 기업 본사, 은행 등 업무기능 일변도에서 레스토랑, 브랜드 명품점 등으로 1층 용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셔틀버스 운행노선도

([www.ligare.jp/bus.pdf](http://www.ligare.jp/bus.pdf))

### 8 새로운 지능형 횡단보도 설치 (영국: 셰필드)

영국 셰필드시는 'PUFFIN(Pedestrian User Friendly Intelligent) crossing'이라고 하는 지능형 횡단보도를 그동안 사용해 오던 'Pelican crossing'(보행자가 버튼을 눌러 신호등을 조작하는 횡단보도)을 대신해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능형 횡단보도인 'Puffin crossing'은 탐지기를 통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동안 보행자의 움직임을 모니터하고, 보행자의 진행 속도에 따라 횡단시간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동안 횡단보도 이용에 대한 보행자들의 불만은 녹색 횡단신호가 너무 짧고, 황색 신호가 깜빡이자마자 출발하려 하는 운전자들이 두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지능형 횡단보도는 운전자용 황색신호를 없애는 대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동안에 빨간색 정지신호를 계속 보내게 된다. 탐지기가 보행자들이 횡단하는 동안에는 녹색신호 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는 도로 횡단 중에 신호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편, 지능형 횡단보도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기존 횡단보도처럼 보행자의 횡단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재빨리 횡단하면 운전자도 진행신호를 즉시 받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횡단보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횡단보도를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횡단버튼만 누르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차를 정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능형 횡단보도는 탐지기를 통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라지면 횡단버튼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지능형 횡단보도의 사용방식이 기존의 횡단보도와 다르기 때문에 'Puffin crossing'이 설치되는 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민들의 이용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학교와 협력하여 어린이들이 새로운 횡단보도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www.sheffield.gov.uk/plugins/press/news/release.asp?akey=1224](http://www.sheffield.gov.uk/plugins/press/news/release.asp?akey=1224))

# 도시교통/사회복지

## 세계도시동향

### 9] 휴대하기 간편한 고속버스 노선도 발간 (런던)

영국 런던 'Transport for London'과 고속버스 운영업체 'Green Line Travel'이 공동으로 최근 휴대하기 간편한 고속버스 노선도를 발간했다. 지하철 노선도를 연상시키는 이 노선도는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과 런던 여행의 편리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다. 노선도에는 운영 업체에 관한 간단한 소개, 노선, 주요 정차역, 주요 관광지 등이 소개되어 있다. 노선도를 원하는 승객은 지역 교통 관광정보센터나 'Transport for London'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Transport for London'은 이 노선도가 성공적일 경우, 타지역 운영을 맡고 있는 회사와도 유사한 형태의 노선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www.transportforlondon.gov.uk/tfl](http://www.transportforlondon.gov.uk/tfl))

### 10] 무료 예방접종 및 수은체온계 교환행사 개최 (디트로이트)

미국 디트로이트시 보건국과 지역방송국 'WXYZ Channel 7'은 최근 공동으로 대규모 예방접종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이 행사는 8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3개월에서 18세까지의 영유아와 청소년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온 행사 참가자는 일찍 예방접종을 마치고 공원에서 가족과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가정에 있는 수은체온계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행사 당일 수은체온계를 비닐백이나 상자에 담아서 가져온 시민들에게 수은체온계를 디지털 체온계로 무료로 교환해 준 것이다. 시는 이러한 수은체온계 교환 행사가 시민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수은오염을 막는 행동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www.ci.detroit.mi.us/ccsd/Releases/pr080103.htm](http://www.ci.detroit.mi.us/ccsd/Releases/pr080103.htm))

### ④ 문맹 퇴치 위해 평생교육교사 채용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는 앞으로 평생교육교사 20명을 채용하여, 지역사회단체나 市 기관 소속으로 시민들에게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이는 市의 성인 중 37%가 사회보장카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거나, 거리안내도에 나타난 교차로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교사들의 첫번째 임무는 제2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성인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단체나 해당 기관에서 언어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자원봉사자를 모집·관리·교육시키는 것이다. 두번째 임무는 市의 시민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에 참여하고, 연구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단체와 해당 기관에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www.dc.gov/mayor/news/release.asp?id=510&mon=200307](http://www.dc.gov/mayor/news/release.asp?id=510&mon=200307))

### ④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동경)

일본 東京都는 최근 제2회 都의회 정기회에서 「동경도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조례」를 가결·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주민, 기업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범죄방지활동을 촉진하고, 주택·도로·공원·상업시설·학교 등의 방법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법등을 설치하여 범죄발생구역을 없애는 등의 하드웨어적 대책과, 지역단위의 방법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의 방법성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공동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축기준법에 의한 건축확인 신청시 도청의 담당직원은 건설회사가 경찰서장에게 방법상의 의견을 요구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都는 공공기관, 주민, 기업 등이 협력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립, 주택·도로·공원·상업시설·학교 등의 방법지침 마련, 조례 홍보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동경도, 廣報東京都, 2003년 8월호)

### 시의회 회의를 지역 케이블TV로 생중계 (달러스)

앞으로 미국 달러스市 시민들은 시의회의 생생한 회의내용을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보고 들을 수 있다. 市の 지역 케이블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시의회의 모든 회의를 전해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4번의 주간회의는 케이블 TV로 생방송되고 이 가운데 2번은 라디오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시의회는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시의회 회의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장 근무시간과 시의회의 회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열리는 의제(議題)회의는 라디오와 케이블TV로 생중계되고 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 열리는 보고회의(briefing meeting)는 케이블TV에서 생방송된다. 케이블TV에서는 시의회 회의 생방송을 놓친 시민을 위해 모든 회의를 수차례 재방송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시의회의 회의 내용을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www.dallascityhall.com/dallas/eng/html/don\\_council\\_meetings.html](http://www.dallascityhall.com/dallas/eng/html/don_council_meetings.html))